

출장결과보고

2018. 11. 13.

제21차 OECD 농촌작업반 회의 주요 결과

농업·농촌정책연구본부

삶의질정책연구센터

정문수 부연구위원

목 차

I. 출장 개요	1
II. 제21차 OECD 농촌작업반 회의 관련 일정 및 의제	3
III. 제21차 OECD 농촌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	5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제40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(RDPC) 회의 및 제21차 농촌작업반 회의
2. 출장목적: 2018년 하반기 제40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(RDPC) 회의 및 제21차 농촌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, 해외 각국의 농촌정책 수립 동향을 파악하고,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12차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 개최 관련 농식품부 협의 지원
 -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(RDPC: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) 및 농촌작업반 회의(the Working Party on Rural Policy)에 참석하여, OECD 농촌정책의 아젠다와 해외각국 정책수립사례를 파악
 - 2018년 제12차 한국 OECD 농촌 컨퍼런스 개최 관련 추진 방향 및 절차 설정과 관련하여, OECD 사무국과의 협의 지원
 - OECD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과 설정된 올해 회의 주제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공동 대응
3. 출장자: 농업·농촌정책연구본부 정문수 부연구위원
4. 출장지역: 프랑스 파리 OECD본부
5. 출장기간: 2018년 11월 4일(일) ~ 11월 9일(금)[4박 6일]
6. 출장일정: (다음 장 참조)

일 자	이동상황	방문 기관	주요 사항
11월 4일(일)	나주→인천→파리	-	• 나주 출발, 출국, 파리 시를 드골 공항 및 숙소 도착
11월 5일(월)	파리 체류	OECD 본부	• 도시작업반 회의
11월 6일(화)	파리 체류	OECD 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21차 농촌작업반 회의 - 09:30~10:00 /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- 10:00~11:00 / 농촌정책3.0: 농촌지역의 혁신 - 11:30~12:15 / 관계부처 회의 - 12:15~13:00 / 토착커뮤니티 - 14:30~15:15 /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: 교육 부문 - 15:15~16:00 / 지역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: 멕시코 히달고 지역, 스웨덴 스말란드-블레킹 • 지역 지표 작업반 연합 세션 - 16:30~17:30 / 지역데이터의 확장, 지역 위상학 - 17:30~18:00 / 기타 산업
11월 7일(수)	파리 체류	OECD 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40차 RDPC 회의 - 09:30~10:15 /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- 10:15~11:00 / 한 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 - 11:30~13:00 / 도시 및 농촌 정책에 OECD 원칙 반영 - 14:30~15:30 / 지역 실태 - 16:00~18:00 / RDPC 관계부처 회의 및 관련 선언문 채택
11월 8일(목)~9일(금)	파리→인천→나주	OECD 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40차 RDPC 회의(계속) - 09:30~10:45 / 탈중심화 과제 설정 - 10:15~12:00 / 효율적 공공투자에 대한 위원회 제언의 모니터링 보고서 - 12:00~12:30 / 교통 및 지역 개발 - 12:30~13:00 / 미래 과제 준비 - 14:30~15:45 / 산업 재편 관리: peer-learning 방법을 활용한 지역 정책 개선, 기타산업 • 귀국, 나주 도착

II. 제21차 OECD 농촌작업반 회의 관련 일정 및 의제

□ 2018년 11월 5일(월):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(1일차)

시 간	의 제
도시정책 작업반 회의	
09:30~09:45	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, 의장단 선출
9:45-10:00	국가 및 글로벌 도시 아젠다에서 OECD의 역할
10:00-11:00	지난 20년 간 OECD 도시 작업의 교훈
11:30-13:00	도시정책에서 OECD 원칙의 수립
15:00-16:15	OECD 도시의 성공사례
16:45-17:15	웰빙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
17:45-18:00	마무리

□ 2018년 11월 6일(화): 농촌정책 작업반 회의 및 지역지표 작업반 연합 세션(2일차)

시 간	의 제
농촌작업반 회의	
09:30~10:00	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, 의장단 선출
10:00~11:00	농촌정책3.0: 농촌지역의 혁신
11:30~12:15	관계부처 회의
12:15~13:00	원주민 커뮤니티
14:30~15:15	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: 교육 부문
15:15~16:00	지역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: 멕시코 히달고 지역, 스웨덴 스말랜드-블레킹
지역 지표 작업반 연합 세션	
16:30~17:30	지역데이터의 확장, 지역 위상학
17:30~18:00	기타 산업

□ 2018년 11월 7일(수): RDPC 전체 회의(3일차)

시 간	의 제
RDPC 전체 회의	
09:30~10:15	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
10:15~11:00	한 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
11:30~13:00	도시 및 농촌 정책에 OECD 원칙 반영
14:30~15:30	지역 실태
16:00~18:00	RDPC 관계부처 회의 및 관련 선언문 채택

□ 2018년 11월 8일(목): RDPC 전체 회의(4일차)

시 간	의 제
RDPC 전체 회의	
09:30~10:45	탈중심화 과제 설정
10:15~12:00	효율적 공공투자에 대한 위원회 제언의 모니터링 보고서
12:00~12:30	교통 및 지역 개발
12:30~13:00	미래 과제 준비
14:30~15:45	산업 재편 관리: peer-learning 방법을 활용한 지역 정책 개선, 기타산업

Ⅲ. 제21차 OECD 농촌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

1. 아이템1: 개최 선언

□ 의장 환영사

- Peter Wostner(슬로베니아)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, 의장단 선출과 연임을 승인
- 21차 농촌 정책 작업반의 세션별 아젠다와 주요 내용 요약

□ 주요 발표 내용(사무국): 농촌 정책 작업반 주요 논의 안건 및 내용 소개

- 업데이트된 농촌 정책 3.0 및 농촌 혁신 증진을 위한 세부 전략, 지역 리뷰 (멕시코 히달고(Hidalgo) 지역, 스웨덴 스말랜드-블레킹예(Smaland-Blekinge) 지역). 지표작업반과 통합 회의 진행 등 21차 회의 주요 내용 요약
- 농촌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와 기후변화, 디지털 기술 및 신생산혁명(new production revolution), 글로벌 경제 변동, 투자 환경의 변화 등 메가 트렌드가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, 주요 농촌 이슈들을 다루고자 함.
- 농촌 작업반 회의에서 농촌이 당면한 이슈를 다루되 특히 지역개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이 당면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전달 관련 문제를 어떻게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지를 협의하고 모색하려 함.
- 농촌이 당면한 도전 사항, 즉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삶의 질 서비스 수요의 변화,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따른 활용 방안 등 농촌 정책이 집중해야 할 사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, 특히 지역 고용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. 이를 통해 농촌의 변화가 가져올 위험의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.
- 올해 회의의 가장 큰 질문은 농촌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도시-농촌 간 협력

적 대응의 이점 및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임. 풍부한 대화를 부탁함.

□ 주요 토의 내용(각국 대표)

- 이스라엘: 이스라엘 농촌 지역이 당면한 문제는 정주 단위의 붕괴(housing unit crisis)가 심각하다는 점임. 이를 통해 농촌의 오픈 스페이스 및 경관, 유산 등 보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함.
 - 이에 농촌 계획 당국은 농촌 지역에 대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음. 이 과정의 관건은 농업 부문을 비롯하여 농촌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지속적인 대화 과정이었으며, 이를 통해 커뮤니티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음.
 - 특히 커뮤니티에 신규 진입한 이주민 등과의 융합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여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. 이러한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기를 원함.
- 스웨덴: 스웨덴에서는 농촌 개발 정책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했으며, 정책 목적은 주로 농촌 관점(rural perspective)의 확립에 두었음.
 -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 활동, 주거 등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도시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.
 - 2017년 OECD에서 발간한 스웨덴 농촌 정책 리뷰 보고서가 농촌 정책의 정합성 확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.
- 핀란드: 농촌 지역의 인프라와 디지털화, 기업 지원 등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도시에 비해 불균등 문제가 심각함.
 -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 등이 중요 과제임. 이외에도, 농업정책 및 농촌정책 간 연계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, 지역정책 수립 과정에서 영역-통합적(territorial-integrated) 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대응 요소를 단순화하고, 관료주의적 단계를 조정하는 등 농촌 개발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 중임.

- 특히, 기후 및 환경 변화의 미래 대응 전략에 집중하고 있음.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농촌 지역의 리뉴얼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임.
- 캐나다: 캐나다의 지역 성장 전략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, 농촌 커뮤니티 혹은 작은 커뮤니티들과 성장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.
 - 도-농 간 균형 및 통합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.
- 의장: 농촌의 접근성 개선 문제 및 글로벌 생산성의 농촌 지역 대응 방안, 통합적 농촌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등이 각국에서 제기한 이슈들임.
 - 농촌과 도시, 혹은 다른 커뮤니티들을 엮는 메트로 관점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도시 및 농촌, 지표 작업반의 공동작업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함.
- 사무국: 도시, 지표 등 다른 작업반과의 공동 대응하여,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고용 등 국가별 지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, 국가 예산 투자 방식, 국가-지역 간 연계 방안, 지역 수준의 기업가정신 (entrepreneurship) 함양 등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으로 논의할 필요.

2. 아이템2: 사무국 지명

- 각국 참석자 명단 확인 등

3. 아이템3: 농촌 개발 정책의 최근 진전 사항

□ 사무국 발표: OECD 농촌 개발 정책

- 2006년 새 농촌 패러다임(new rural paradigm) 수립은 농촌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고려하게 하고, 농업에서 농촌으로, 농촌 장소의 사회적 형평에서 경제력 향상으로, 몇몇 자원 자원에 대한 지원 방식에서 광의의 농촌 경제 개

발 방식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도약이 되었음.

○ 2010년 이후 8가지 주제별 프로젝트 수행

- 1) 농촌 서비스 전달 향상 전략(2010)
- 2) 모든 지역에 대한 성장 증진(2012)
- 3) 신재생 에너지를 농촌 개발과 연계하기(2012)
- 4) 도-농 파트너십: 경제 개발의 통합적 접근(2013)
- 5) 식품 안전 및 영양에 대한 영역적 접근(2016)
- 6) 토지이용 거버넌스(2017)
- 7) 북부 저밀도인구 지역(2017)
- 8) 광산지역개발(진행 중)
- 9) 토착 커뮤니티와 지역개발(진행 중).

○ 10가지 결론 요약

- 1) 기회의 장소: 토지와 물을 비롯한 자연 자원을 보유한 기회의 공간
- 2) 경제적 다양성: 식품과 에너지, 환경 서비스 제공 외에, 제조업, 서비스업 부문 생산이 성장하는 원천이 됨
- 3) 특성, 수요의 다양성: 다양한 입지와 자원, 인구 구조, 도시 접근성은 농촌의 활력을 형성하는 요인들임. 이에 따라 농촌 개발을 증진하려면 맥락-구체적(context-specific) 정책 대응 및 장소-기반(territorial-based) 전략이 필요함.
- 4) 생산성 성장 증진: 농촌의 통상 부문(tradable sector)이 농촌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므로, 농촌의 기술 및 혁신, 인프라,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해야 함
- 5) 저밀도 경제를 위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: 낮은 가치를 창출하는 1차 활동 및 서비스 부문 외에, 농촌 고유 자산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이동해야 함
- 6) 협력을 통한 개선: 농촌과 도시 지역은 서로 생태계와 상품 유통, 서비스, 인력을 공유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공간 정책에서 서비스 전달 및 공공 투자, 공공 재화 운영 등에서 보다 커다란 협력을 창출할 필요

- 7) 통합적 정책 접근: 부문 정책 효과를 향상하려면 타 부문과의 연계해야 함. 부문 정책 간 연계를 위해, 농촌 영향평가(rural proofing)를 넘어선 강력한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
 - 8) 제도의 중요성: 농촌 정책 실행 능력은 행정 방식의 수준에 달려 있음. 중앙 및 지방 정부를 뛰어넘는 공공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OECD 원칙은 농촌 정책의 효과성 및 지역 지도자의 역량 발현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
 - 9) 다양한 성공의 방향: 농촌 지역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, 경제적 경쟁력과 시민의 웰빙,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. 다차원적 지역 지표는 이러한 과업을 평가하기 적절함
 - 10) 협상장(in the middle)에서 만나기: 지역 이해당사자들 - 시민, 지역사회조직, 민간부문, 지자체 등 - 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농촌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, 상향식 주도성에 대한 지원 및 강화
- 2018년 에딘버러 농촌 개발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'Forward looking and embrace innovation(미래에 대응하여 혁신을 포용하기)'
- 1) 에너지 시스템의 탈중심화
 - 2)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
 - 3) 자율주행 자동차
 - 4) 드론
 - 5) 첨가형 및 분배형 제조(Additive and distributive manufacturing)
 - 6) 식품의 미래
 - 7) 교육의 미래
 - 8) 건강의 미래
 - 9) 디지털 연결성
 - 10) 가치의 전환

□ 주요 토의 내용

- 의장: 혁신은 단지 기술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, 이를 넘어서는 변화를 의미

함. 따라서 사회적 자본, 사회 혁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- 그렇다면, 다음 단계를 딛기 위해 농촌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해야 함.
- 이를 위해 농촌 변화를 추동하는 10개의 핵심 동인과 더불어, 농촌 계획의 수립자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.

□ EU(European Commission, 미하일 드미트리):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

- 정책 디자인의 혁신: 9가지 세부 목적 및 부문 간 연계(cross-cutting) 목적: 지식 및 혁신을 위해
- CAP 목적 수립의 새로운 구조:
 - ① 포괄적 목표: 농가 부문의 회복력 증진, 환경 및 기후 강화, 농촌 지역 사회 조직 강화
 - ② 세부 목표: 경제 [적정 소득 보장, 경쟁력 증대, 식품유통구조의 권력 배분 (rebalance power in food chains)], 환경 및 기후 [기후변화 행동,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성, 경관 및 생태다양성 보존], 사회 [세대 리뉴얼(generational renewal), 농촌 활력화, 식품 및 보건의 질]
 - ③ 부문 간 연계 목표: 지속가능성, 근대화, 단순화
- 정책 디자인의 혁신(CAP 전략적 계획)
 - 직불제, 시장 지원, 농촌 개발 등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

□ 주요 토의 내용

- 캐나다: 2~3년 전에 지자체 전략 연구를 수행했는데, 이해당사자들의 협의 및 역할, 신경제 드라이브, 지방 내부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성장 방안,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주체를 포괄하는 기업가정신 함양, 농촌과 도시 간 연계 협력을 매개하는 기회 확대, 디지털 기술 및 광역 교통망 연계를 통해 고립된 농촌 커뮤니티까지 포괄하는 연결성 증진 방안 등을 고려

- 핀란드: 사회 혁신의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협력 및 이를 통한 경험 증진의 중요성 언급.
- 의장: 지역 수준에서 상향식 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.
- 일본: 일본은 기술적 혁신을 뛰어넘는 농촌 혁신의 단계에 대해 스타터디함. 지역의 참여자들이 작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도록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음.
- EU: 작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실험적 실천들을 시도하고, 디지털 기술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. 특히 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해 지역이 주도성을 확립해야 함. 이 과정에서 상향식 주도성을 하향식 정책 지원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지가 중요.
- 의장: 원격 농촌지역과 도시 간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스마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.

4. 아이템4: 농촌 정책 3.0 - 농촌 지역의 혁신

□ 제12차 한국 농촌 개발 컨퍼런스 소개 및 초청(농식품부 김준현 사무관)

- 한국은 내년 12차 농촌 개발 컨퍼런스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을 요청.
- 내년 9월에 개최될 12차 한국 컨퍼런스는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가운데, 농촌 지역에서 청년의 이주 및 커뮤니티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다룰 예정

□ 주요 발언 내용

- 이탈리아: 한국 컨퍼런스에서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어주어 감사함. 젊은 세대의 농촌 활동 방안 또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각국이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사항임.

- 일본: 아시아의 이웃 국가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관심을 피력. 농촌 개발 정책에 대해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원함.
- 의장: 농촌 지역의 웰빙과 경제적 번영 아젠다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은 중요한 문제임. 특히 젊은 세대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춘 점이 흥미로움. 참석해서 더디일하게 살펴보고 논의했으면 함.

5. 아이템5: 각국 부처 미팅 및 농촌 원칙(Rural Principles)

□ 주요 내용: 2019 RDPC 각료 미팅 진전 사항 관련 발표 및 토의

□ 2019년 3월 각료 회의 소개

- 일정: 2019년 3월 19일 ~ 20일
- 주요 내용: 글로벌 메가 트렌드 소개, OECD 농촌 정책의 회고와 전망, 디지털 및 글로벌 경제에서 지역 정책 방향, 만인 및 모든 곳에서의 포용: 인구학적 및 사회적 변화 관리, 스마트 예산 지출: 인프라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, 상향식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재고찰 등
- 농촌 원칙(Rural Principles) 제정:

□ 사무국: 농촌정책 원칙(Principles on Rural Policy) 제정 제안

- 원칙 제정의 근거
 - 개선된 농촌정책의 디자인 및 실행: 농촌 경제를 지원하고, 농촌 주민의 웰빙 증진 목적
 - 우선순위 천명: OECD 회원국의 농촌 지역과 커뮤니티에 대한 번영과 웰빙 설정

- OECD 40년의 농촌정책 작업의 공식화
 - 농촌 및 도시 정책 아젠다의 통합 개선: 농촌-도시 지역 간 강력한 상호의존성 증진
 - 데이터 및 지표 개발: 농촌 지역의 웰빙에 대한 다차원적인 점검 및 농촌 정책의 실행 지원
 - 농촌 개발 정책의 성공사례(best practices)를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수단 제공
- OECD 농촌정책 원칙의 열개; 3S – 범위(Scale), 전략(Strategy), 이해당사자(Stakeholders), 범위(Scale)
- 향후 일정
- 2018년 11월: 초안 발표 및 토의
 - '18년 말 ~ 19년 초: Webinar(웹 세미나)
 - '19년 3월: 각국 장관 환영 원칙(Ministers welcome Principles)
 - '19년 11월: 향후 제언 방향에 대한 회원국 협의
- OECD 농촌 정책 원칙에 대한 개요

범위(Scale)	<p>어디에서?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소의 맥락 2. 농촌정책의 조정 및 보완 3. 도시-농촌 연계 강화 4. 농촌 데이터 개선
전략(Strategy)	<p>무엇을 & 어떻게?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웰빙 증진 6. 기업가정신 함양: 중소기업(SME), 글로벌가치사슬(GVC) 7. 지속가능발전 증진 8. 농촌 영향평가(rural proofing)을 넘어선 통합 9. 상향식 개발에 인센티브 제공 10. 서비스 전달 관련 농촌정책 조정 11. 기술 증진 및 혁신 지원
이해당사자(Stakeholders)	<p>누가?</p>

	12. 협력 및 포용 증진 13. 역량 배양 행위 포괄 14. 효율적인 참여 행위 증진
--	--

□ 주요 토의 내용

- EU: 농촌 개발의 원칙에 대한 공식화된 내용을 만들려면 지역과 아이디어를 더욱 공유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며, (이러한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해)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.
 - 도시 및 농촌 정책 간 공동의 구조를 정립하기 이전에 도시와 농촌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해야 함.
 -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 다양성 증진 관점의 토지이용 비전이 생략되어 있으며, 사회-환경 개선을 위한 공적 개입의 수단 및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음.
- 포르투갈: 이해당사자 간 협력 및 연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함.
 - 특히 '원칙 6.(기업가정신 함양) 부분에서 생태계 서비스의 공공자원 지원 및 디지털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할 필요
- 한국: 지역개발 방식에 대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장소 중심적 접근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, 한국 또한 지역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는 전략이 도출되도록 고려하고 있음.
- 스코틀랜드: 농촌 지역이 도시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농촌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함.
- 일본: 구조와 내용에 대해 동의함.
- 이탈리아: 해당 내용을 진전시켜주어 감사함. 명료하고 간략하게 공식화된 메시지가 지역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, 이들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커뮤니티 에너지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.

- 젊은 세대의 비전 형성 측면을 더욱 강조하여, 젊은이들의 비전으로 'OECD Young'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.
- 스위스: 거버넌스 이슈가 빠졌음. 다수준 거버넌스((multi-level governance: 중앙정부-지방정부 간 거버넌스) 부분에 대한 원칙을 추가하여 수정해야 함.
- 프랑스: 제시된 원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, 구체적인 방안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음.
- 의장: 농촌을 이해하는 전통적 관점을 넘어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. 농촌이 지닌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농촌 발전의 전제가 되어야 함.
 - 이제 농촌은 신기술과 서비스 전달, 생산성 향상 등에서 혁신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음. 그간 OECD 지역 사례를 리뷰해본 결과, 농촌은 농업 외에 광산업 등 커다란 기반 산업의 공간이기도 함.
 -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회색지대를 어떻게 다룰지, 농촌 커뮤니티 바깥에 존재하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해야 하는지, 지방 차원에서 교통, 토지이용 등을 서로 다른 부문에서 별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도시정책과 농촌정책이 연합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
 -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도시와 농촌이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당면하고 풀어야 함. 농촌 아젠다를 도시와 통합하려면, 영역-기반 접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정해야 함.

6. 아이템6: 원주민 커뮤니티

□ 발표: 원주민과 지역개발을 연계하기 - 스웨덴 사례

- 원주민과 공동체는 지역경제 동학의 일부이지만 지역개발을 증진하려는 노력에서 분리되어 있음.
- 사미(Sami): 핀란드와 노르웨이, 스웨덴의 북부 지역에 속한 해안 및 내륙, 러시아의 콜라 반도 등지에 흩어져 살던 원주민 집단으로, 인구는 대략 2만 명

에서 4만 명 사이로 추정됨. 주된 경제수단인 순록 방목을 통한 토지이용 권리 문제가 주요한 지역개발 이슈임.

○ 핵심 문제:

- 1) 사미 주민들의 경제와 생활, 웰빙 부문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함.
- 2) 순록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, 압박 요인이 있음.
- 3) 사미 주민의 문화 부문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서,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과 보조금이 필요.
- 4) 스웨덴 북부 지역에서 관광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, 사미 커뮤니티의 자체적으로 보유한 관광사업체가 매우 적음.
- 5) 사미 커뮤니티의 구체적인 사업 수요에 맞추도록 정책 지원 환경을 체계화할 필요.
- 6) 스웨덴 북부의 지역 개발 전략에서 사미의 문화적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으며, 지자체 차원에서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개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.

○ 주요 제언

- 1) 원주민 커뮤니티의 생활양식과 웰빙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전달 방식 개선
- 2) 원주민 커뮤니티의 생활 및 사업 관련 환경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개선
- 3) 원주민 커뮤니티 및 지역 개발 노력 간 연계 강화

○ 향후 사미 대상 국가 정책 방향

- 1) 사미 자치의회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확립(행정 데이터 및 정보, 자원 공유에 대한 MOU 체결 등)
- 2) 스웨덴 정부와 사미 자치의회 간 연간 전략적 대화의 정례화
- 3) 장기적 관점의 중간 과정에서, 원주민 권리의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, 고유한 문화 정체성과 자기-결정권 개선을 지원하도록 사미 주민의 현재 정책 수요를 반영

7. 아이템7: 비도시지역의 공공서비스 : 교육

□ 사무국 발표: OECD 농촌 개발 정책

- OECD는 비도시지역의 공공서비스 중 '교육'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
- OECD의 교육 및 기술 담당의 지방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을 형성하는 경향 및 학교 자원에 관하여 검토함.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결과를 향상시키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
-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근 학생 수의 변동, 도농 간의 이주와 같은 수요 변화와 학생들의 다양성 증대, 노동시장 변화 등의 학생들의 요구 변화에 대해 시스템이 반응해야 함.
- 지방 및 원격지의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크기와 거리임
- 작은 사이즈는 학교, 가족, 학생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지만 또한 학교 네트워크의 재정 지원, 광범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에서는 과제가 남아 있음
- 농촌과 원격지의 고품질 교육 촉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개혁 전략을 지속하고, 학교 통합의 지도 원칙으로서 품질, 평등, 학생 복지 등을 고려해야 함.
- 또한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의 자원 요구를 인정하고, ICT 및 보완적 거리 학습 사용을 탐구해야 함

□ 주요 토의 내용

- 이탈리아에서는 단순히 접근성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학교, 선생님의 규모 및 숫자와 지역 간 이동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, EU에서는 OECD 주요국의 높은 수준의 교육만 논의해서는 안되며, 교육과 경제의 관련성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함.

8. 아이템8: 지역성장 및 경쟁력 제고(지역 리뷰)

□ 사무국 발표: 멕시코 히달고 지역

- 멕시코 히달고는 멕시코 동부에 위치한 작은 주로서 멕시코에서 9번째로 낮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곳임. 완전히 도시화 되지도 않고,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격차가 심함.
- 히달고의 경제는 국가 평균을 따라잡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- 히달고는 지리적 위치나,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많고, 경제의 다양성, 치안,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낮은 생산성, 미숙련 노동력, 높은 비정규직 비율, 남북 분절 등의 과제 또한 보유하고 있음
-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히달고의 경제적 융합을 가속화하고,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요소들을 향상시키며, 더 나은 거버넌스를 통한 포괄적인 성장에 참여하는 단계적인 정책을 제시
- 멕시코 대표단에서는 히달고는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경제적 악순환을 보여왔으나, 경제 잠재력 향상을 위한 네 가지 방법(사업환경 조성/현재 경제활동의 강화/지역, 국가, 외국의 신규 투자 강화/새로운 영역에서 기업가정신 혁신)을 통해 고용 증가, 신규 투자 향상,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였음을 발표함.

□ 사무국 발표: 스웨덴 Smaland-Blekinge 지역

-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의 이주 증가로 인한 인구증가를 경험한 스웨덴의 Smaland-Blekinge 사례를 발표함
- 스웨덴은 다수 난민의 이주,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의 영향, 행정적 합병의 물결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2012년부터 맞이하고 있음, 특히 인구 유입

과 통합은 중요한 환경변화임.

- Smaland-Blekinge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였고, 이를 통해 공공사업 지원 시스템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, 공통 브랜드의 관광지역을 정하고, 지역차원의 청년 정책 등을 발전시켜옴
- 자산유동성 및 광대역 인터넷망, 농촌(비도시) 발전에 대한 책임 부족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로 볼 수 있음

9. 아이템9: 지역데이터의 확장(지역지표작업반 - 농촌작업반 합동 회의)

□ 사무국 발표

- OECD 사무국은 관광 통계 관련하여 발표. 관광업의 영향력 등에 대해 포커싱하고 있음을 언급.

□ 주요 토의 내용

- EU: 관광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특히 관광 관련 통계는 도시, 비도시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바 좋은 정보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.
- 스웨덴: 관광 통계 수집의 목적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인지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

10. 아이템10: 대도시 인구, 저밀도 및 원거리를 기준으로 소규모 지역 분류(TL3) (지역지표작업반 - 농촌작업반 합동 회의)

□ 사무국 발표

- OECD는 기존 분석 도구 키트를 보완하는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국을 밀도와 도시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초로 전국을 TL3로 분류하는 유형을 제시
- 기능적 도시지역(FUA)에 25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지역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비-대도시지역으로 분류
- 비-대도시 지역은 대/중/소 FUA에 대한 접근성 (운전 거리)에 따라 분류
- 이러한 새로운 틀킷은 기존의 국제적인 비교 분석 기준에 대해 1) 도시-농촌 간 연계성 2)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예의 영향 3) 지역 시스템의 기능 공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음
- 이러한 틀킷에 따를 때 거대도시지역은 대도시 지역보다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비도시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

□ 주요 토의 내용

-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해 각 국가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짐
- 한국: 부록에 수록된 분석 결과 중 전라남도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알려진 전라남도가 대도시권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언급.
 -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분석대상의 지역범위가 크고, 지역 내 생활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함.
 - TL3는 OECD 내에서는 소규모 지역으로 분류되나, 한국지역의 TL3는 시,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바로 아래의 지역 단위를 나타냄. 이러한 큰 단위 지역에서 지역마다 생활 격차가 클 경우, 사람들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편리한 일부 대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, 그 결과 소수의 대도시에 많은 수의 인구가 살게 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.
- 스위스 및 이탈리아: 도시지역을 판별하는 기준이 25만이라는 점이 국가별로

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 제시. 스웨덴은 국토의 형태도 각각 달라 일괄적으로 TL3의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 제시.

□ 발표: 도시 및 정착지의 국제적 정의를 위한 로드맵(Lewis Dijkstra)

- 지역 및 도시 정책의 경제 분석 책임자인 Lewis Dijkstra가 '도시 및 정착지의 국제적 정의를 위한 로드맵'을 주제로 발표함
- 도시화의 정도 및 기능적 도시지역을 기초로 한 지역 분류 기준 제시